

선비精神에 비추어 본 鄭仁弘의 著述과 生涯

윤인현*

<차례>

- I. 序論
- II. 從來의 論議
- III. 著述과 生涯의 선비精神的 評價
- IV. 結論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 중기의 北人 학자 來庵 鄭仁弘의 著述과 生涯를 통하여 그의 선비精神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먼저 『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록과 그에 대한 後代 연구자들의 평가를 검토한 후, 그의 저술과 생애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선비정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朝鮮王朝實錄』·『石潭日記』 등의 기록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인물에 대한 시대적 평가는, 각각 어느 정도 一理 있는 객관성을 보인다고도 하겠으나, 각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政派에 따라 평가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현대의 연구자들에 이르러서는, 대개 래암을 개혁적이며 진보적인 士林派로 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상대편의 政派를 포용하지 못한 비타협적인 인물로서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 래암에 관하여 평가하되, 그의 저술과 생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儒者的 가치관과 선비정신에 의해, 종래의 부정적인 평가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정인홍, 선비정신, 『조선왕조실록』, 강직한 인물, 괴수 역적, 당파의 색깔, 출처관.

*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강의교수

1. 序論

본고는, 조선 중기의 北人 학자였던 來庵 鄭仁弘의 著述과 生涯를 통해 그의 선비정신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朝鮮王朝實錄』에는 宣祖와 光海君朝에 관한 기록에 來庵에 관한 기록이 많다. 그 기록 중에는 來庵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來庵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어째서 더 많았는지, 아니면 실제로 『朝鮮王朝實錄』 내용의 일부처럼 그의 삶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려 한다. 그리고 來庵의 실제의 삶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의 상관관계에서 서로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도 아울러 고구해 보고자 한다. 또한 후대의 연구자들이 來庵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봄으로써, 來庵의 인물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런 뒤에 저술과 생애를 통해 살펴볼 수 있는 來庵의 선비정신을 논의하고자 한다.

來庵 鄭仁弘(1536~1623)은, 山林處士와 山林政丞의 호칭을 아울러 받은 인물이다. 中宗 31년 慶尙右道 陝川郡 冶盧縣 簑村[지금의 가야면 사촌리]에서 출생하였다. 어린 시절은 安陰[지금의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에서 葛川 林薰으로부터 受學하였으며, 15세(1551)를 전후하여 三嘉縣[지금의 함천군] 兎洞의 鷄伏堂에서 南冥 曹植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하였다. 來庵이 36세 되던 해에는 臥病 중인 남명을 찾아 간병하기도 하였는데, 남명은 임종시에 內明者敬, 外斷者義이 새겨진 칼을 주면서 ‘敬’과 ‘義’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남명은 특히 ‘敬’·‘義’를 높였는데, 마음이 밝은 것을 ‘敬’이라 하고 外的으로 과단성이 있는 것을 ‘義’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修己 차원의 敬 사상에 견주어 그 敬 사상의 현실적 실천이 義 사상이다. 이러한 의식은 바로 ‘敬’으로써 마음을 끈게 하

고 ‘義’로써 실천해 나간다는 실천궁행을 강조한 것이다. 남명은 ‘敬’과 ‘義’를 잊지 않기 위하여 ‘惺惺子’라는 방울을 지니고서 ‘佩劍銘’이 새겨진 劍을 차고 다녔다¹⁾고 한다. 이 같은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래암 또한 ‘義’를 통한 실천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다. 壬辰倭亂이 일어나자 57세의 나이임에도 倡義하여 累卵之危의 조국을 위해 헌신한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南冥이 별세한 2년 후(1575) 38세에, 래암은 卓行之士로 師友인 崔永慶과 함께 발탁되어 첫 出仕를 하였다. 黃澗 縣監을 시작으로, 43세에는 永川 郡守, 그리고 45세에는 司憲府 掌令을 지내고 退任하게 된다. 그 下鄉의 이유는 司憲府 大司憲 李珣와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었다. 고향에 돌아온 그는, 합천 인근의 유생들과 修學하며 爲己之學에 힘쓴다. 래암이 고향에서 후학들과 修己治人하는 동안, 54세 되는 해에 己丑獄事(1589, 선조22년)가 발생하여 西人系로부터 同門인 최영경을 비롯하여 서화담의 제자인 李滂이禍를 입게 된다. 래암 자신도 관직삭탈을 당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화담계와 남명계는 공동의 피해자로 동류의식을 갖게 된다.

57세(1592)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래암은 경상 우도에서 제자인 하흔·조응인·문경호·권양·문홍도·박이장 등²⁾과 의병활동을 하여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임진왜란 후 그 공적을 인정받아 65세에 刑曹 參議, 68세에 同副承旨에 除授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67세

1) 『朝鮮王朝實錄』, 『宣祖修正實錄』 卷7, 선조 6년, 5월 경진. “植常佩鈴喚醒, 拄劍警昏. 末年以鈴與金字顯, 以劍與仁弘曰, 以此傳心.”(조식은 항상 방울을 차고 다니며 주의를 환기시키고 칼 끝을 턱 밑에 괴고 혼매한 정신을 일깨웠는데, 말년에 이르러 방울은 金字顯에게, 칼은 정인홍에게 넘겨주면서 이것으로 心法을 전한다고 하였다.)

2) 『국역연려실기술』 卷4, 「선조조 고사본말」, 민족문화추진회, 1988, p.179.

때 선조의 특지로 大司憲에 임명되어, 기축옥사에서의 가해자인 西人을 배제하려다가 오히려 西人의 탄핵소로 그 의도가 좌절되어 수개월 후 落鄕하였다. 그 후로는 거듭된 出仕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다.

光海君이 등극하면서 그의 立地는 더욱 높아져, 山林에서 비판적 상소문을 거듭 올렸다. 그 상소문 중에는 「晦退辨斥疏」(77세)가 있는데, ‘이언적과 이황의 문묘 배향이 잘못되었다.’고 두 인물을 비난한 것이다. 이에 이황이 남명을 ‘老莊爲崇’이라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 83세 때에 廢母殺弟의 논의가 있자, 來庵은 全恩說로 폐모에 반대하였다. 北人 이이첨의 전횡으로 정국 운영에서 배제되었던 西人들이 1623년 反正의 성공으로 來庵을 廢母殺弟의 조종자로 모함하여, 89세의 노인으로서 처형되었다. 서인 정권 하에서 폐모살제로 몰려 처형된 후, 高宗 때 후손 鄭基德에 의해 伸冤이 요청되었으나 묵살되었으며,³⁾ 순종 1년(1907)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의 권유로 좌의정 한효순 외 77명의 관작이 회복될 때에 정인홍도 마침내 伸冤되었다.⁴⁾

來庵 鄭仁弘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에는 의병 활동⁵⁾과 정치사상⁶⁾ 그

3) 『朝鮮王朝實錄』, 『高宗實錄』 卷1, 고종 원년, 8월 무술. “癸亥罪人仁弘及造之孫, 爲其祖訟冤矣.”(“계해년 <1623>의 죄인들인 鄭仁弘과 鄭造의 후손들이 자기 조상을 위하여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였다.”)

4) 『朝鮮王朝實錄』, 『純宗實錄』 卷2, 1년, 4월 30일(양력) “爲先故左議政韓孝純外七十七人之復官爵, 經議後開錄 …(중략) …領議政 鄭仁弘… (중략) … 上奏.” 允之.(“우선 故 左議政 韓孝純 외 77인의 관작을 회복시킬 데 대해서만 상의를 거친 뒤에 開錄하여 … (중략) … 領議政 鄭仁弘 … (중략) … 上奏합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5) 鄭鉉在, 『慶尙右道 壬辰義兵의 戰跡 검토』- 金沔·鄭仁弘 의병군단을 중심으로, 『慶南文化研究』17,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所, 1995, pp.43~88.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경상우도의 의병 조직의 변화와 의미, 『지역과 역사』 제9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2001, pp.165~200.

6) 이이화, 정인홍은 역적인가, 지사인가?-자료로 본 한국사의 쟁점, 『마당』45, 계몽사, 1985, pp.220~227.

리고 來庵의 문인 현황⁷⁾·來庵의 유학사상⁸⁾·來庵의 실천적 교육정신⁹⁾에 관한 연구 등이 있었다. 본고에서 필자는, 來庵의 선비정신을 저서와 생애를 중심으로 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그러기에 필자는 본고에서, 먼저 來庵에 대한 과거와 오늘날의 논의는 어떠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朝鮮王朝實錄』의 기록과 來庵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래암이 어

이이화, 鄭仁弘의 政治思想과 現實認識, 『慶南文化研究』11,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所, 1988, pp.163~176.

權仁浩, 朝鮮 中期 士林派의 社會政治思想 研究- 南冥 曹植과 來庵 鄭仁弘을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0, pp.57~177.

李相弼, 來庵 鄭仁弘의 學問性向과 政治的 役割, 『南冥學研究』 제6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1996, pp.73~102.

禹仁秀, 來庵 鄭仁弘의 政治社會的 位相과 役割, 『朝鮮史研究』5, 朝鮮史研究會, 1996, pp.39~59.

權仁浩, 來庵 鄭仁弘의 至治主義的 學問傾向性과 改革思想, 『南冥學研究論叢』 제6집, 南冥學研究院 出版部, 1998, pp.401~439.

申炳周, 宣祖 후반에서 光海君代의 政局과 鄭仁弘의 역할, 『南冥學研究』 제11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1, pp.233~267.

許捲洙, 「仁祖反正으로 인한 南冥學派의 沈沒과 沙溪學派의 浮上」, 『南冥學研究』 제16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3, pp.259~298.

신항수, 정인홍, 근왕의 충신인가 패륜의 역신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12호 봄, 서해문집, 2003, pp.207~220.

尹晶, 「조선 후기 政界의 鄭仁弘 인식과 그 정치적 함의」, 『震檀學報』 제100호, 震檀學會, 2005, pp.53~84.

7) 申炳周, 南冥 曹植의 學風과 南冥 門人의 활동, 『南冥學研究論叢』 제3집, 南冥學研究院, 1995, pp.279~320.

史載明, 「來庵門人에 관한 考察-來庵門人의 現況과 動向을 中心으로」, 『南冥學研究論叢』 제8집, 南冥學研究院 出版部, 2000, pp.157~189.

서정문, 「南冥集의 編刊과 來庵·寒岡 門派의 成立」, 『朝鮮時代史學報』40, 朝鮮時代史學會, 2007, pp.133~213.

8) 成校珍, 來庵 鄭仁弘의 儒學思想-그의 산림적 위치와 군사적 경세론을 중심으로, 『研究論文集』35,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1987, pp.137~167.

9) 신창호, 「래암 정인홍의 실천적 교육정신」, 『한국교육학연구』 제11권 제2호, 安岩教育學會, 2005, pp.5~28.

떻게 인식되었는가 그리고 오늘날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논의해 왔는가를 고찰하고, 그런 뒤에 『來庵集』에 전해지는 그의 글과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된 행적을 통해 선비정신의 측면에서 來庵 鄭仁弘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자 한다.

II. 從來의 論議

먼저 『朝鮮王朝實錄』 중에서 來庵 鄭仁弘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고자 한다. 『朝鮮王朝實錄』의 선조·광해군의 실록에는 래암에 관한 상소문이 많다. 그 상소문은 래암을 지지하는 내용과 반대하는 내용으로 확연히 구별된다. 상소문에는 개인의 주관이 다소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체로 제3자의 시각인 史臣의 평을 논거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상소문과 문집의 내용도 논거로 활용할 것이다.

다음의 자료는, 복인 정권 때 기록된 『宣祖實錄』에는 실려 있지 않고 서인 정권 때에 기록된 『宣祖修正實錄』에만 실려 있는 것이다. 副司果 李貴가 상소한 내용과 史臣의 論이다.

“신[時益]이 한 번 인흥의 허물을 말하자 그의 도당들이 멋대로 신의 一族을 꺼림 없이 쫓아내었고 심지어는 집을 부수고 고향에서 내쫓기까지 하였습시다.” …(중략)… 살펴보건대, 李貴의 이 상소는 인흥의 죄악을 갖추어 진술하였는데, 이이첨의 무리가 역사를 기술할 때 삭제하고 싶지 않았다. 그들이 인흥을 위하여 숨겨주는 것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통탄스러운 일이다.¹⁰⁾

10) 『宣祖修正實錄』 卷36, 선조35년(1602), 윤2월 갑오.

위의 자료는 李貴가 올린 상소문이 仁祖反正 후에 실렸다는 것을 보여준 예로, 이귀가 召募官으로 갔다 온지 10년 후에 기록한 것이다. 래암의 허물은 임란시 의병을 해체하지 않고 개인 사병으로 두어 사사로이 부렸다는 것이다. 만약 래암의 허물이 있었다면 소모관을 다녀온 뒤 곧바로 상소하여야 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뒤에 상소한 것은, 의도적으로 래암의 위상을 훼손시켜 날로 강성해져 가는 그 세력을 저지하려는 치밀한 의도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史臣은 論하기를 정인홍의 죄악을 감추어 진술한 것은 이이첨 무리가 그 죄악을 덮어 주기 위해 역사를 기술할 때 그 내용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는 『宣祖修正實錄』의 결함을 보는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뒤집어 말하면, 자신들의 유리한 면을 부각시킬 수도 있다는 뜻이다. 『宣祖實錄』에도 없는 내용을 구태여 史臣의 論까지 첨가하면서 그것도 10년 前의 일을 기술한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다음 자료는 李貴의 상소문이 잘못되었음을 의령 진사 오여운의 상소문으로 『宣祖實錄』에 실려 있는 것이다.

지금의 萬戶 曹繼明을 別將으로 삼아 모든 군사들을 거기에 소속시키고 모유격(茅遊擊)의 嚮導로 삼았는데 이것이 오래도록 병권을 장악하여 우마처럼 사사로 부렸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소위 官奴에 대해서는 처음에 용맹하여 응모했다가 나중에 적군의 목을 베면 免役을 시켜 적군이 오면 군대에 편입시키고 적이 물러가면 마음대로 가게 했는데, 이것이 자기 집에 그대로 두고 사사로 부렸다는 것입니다.¹¹⁾

위의 자료는 李貴가 상소문으로 올린 『宣祖修正實錄』의 래암에 대한 허물을 오여운이 상세하게 논박한 글이다. 다음은 『宣祖實錄』의 오여운이 정인홍의 인품을 찬양한 내용에 대한 史臣의 論이다.

11) 『宣祖實錄』, 卷145, 선조 35년(1602), 9월 갑신.

그가 세상에서 흔하지 않은 소명을 받고 초야에서 몸을 일으켜 나오자 임금의 자리를 비우고 기다렸고 朝野는 눈을 닦고 바라보았다. …(중략)… 그러나 그렇지 못하여 한갓 악을 미워하는 마음만을 품고 시세의 마땅함을 살피지 않으며 선입관을 위주로 자기의 견해를 혼자 고집하였다. …(중략)… 대체로 그를 그르친 자는 그릇된 그의 문객들이며, 그 문객들이 그른 줄 모르고 그들을 믿은 것은 바로 인흥이 편협하고 밝지 못한 소치이다.¹²⁾

史臣은 래암이 산림에 거처하였는데, 氣節이 높아 遺逸로 出仕를 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래암은 出仕하여, 時流에 휩쓸리지 않고 원리원칙에 충실하자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해 했다는 것이다. 史臣은 래암의 강직한 성품은 인정하면서도 래암 주변의 문객들의 잘못으로 래암이 비난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처럼 『宣祖實錄』에는 래암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은 없다. 또 다른 『宣祖實錄』 史臣의 논에도 “鄭仁弘은 타고난 天性이 효성스러웠고 몸가짐이 강직하고 방정하였다.”¹³⁾하여 래암의 성품이 강직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서인 정권 때 편찬한 『宣祖修正實錄』에는 “없는 말을 만들어 남을 모해함에 있어서는 음험하고 교사함이 한량이 없어 비록 至親이나 친구 간이라도 금방 원수처럼 변하는 등 마음의 소양이 두터우면 두터울 수록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더 포악하였다. 그의 讀書는 故事에 정밀하고 해박함이 조식보다 뛰어났으며, 더욱이 시비를 변론하고 공격하는 작문에 소질이 있어 사람들이 잘못을 알지만 강한 것이 무서워 대항하지 못하였다.”¹⁴⁾라고 하여, 래암의 성품이 음흉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독서의 양이 스승 조식보다 정밀하고 해박하되, 그 해박한 것이 단지 시비를 변

12) 『宣祖實錄』, 卷145, 선조 35년(1602), 9월 갑신.

13) 『宣祖實錄』 卷211, 선조40년(1607), 5월 정축.

14) 『宣祖修正實錄』 卷7, 선조6년(1573), 5월 경진.

론하고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폄하하였다. 이와 같이 래암에 대한 『宣祖實錄』과 『宣祖修正實錄』의 평가 차이가 분명한 것은 당시의 정치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서인 정권 때 나온 『光海君日記』에서도 사신은 “대저 그의 천성이 강하고 급하면서도 사나워 발끈 성을 내며 자신을 깨끗이 하려고 하니, <氣節이 남을 헐뜯는 것으로 변화였고 엄숙함이 각박한 것으로 변화여> 마침내 한 당파에 치우쳐 서로 공격하고 자기보다 나은 자를 투기하고 꺼려 사람과 물건을 해치고 은혜와 원수를 보복하는 것으로 能事を 삼았다.”¹⁵⁾라고 하여 정인홍의 천성에 대해서 비난하였다.

다음 자료는 ‘정인홍이 이언적과 이황을 비방하고 문묘종사가 부당함을 극론하다.’에 대한 史臣의 論이다. 먼저 史臣은 래암이 筮子를 올린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황이 스승인 조식을 “老莊爲崇”으로, 래암 자신의 스승격인 성운을 “淸隱, 認爲偏小一節之人.(청은이라 지목하여 한 조각의 작은 절개를 지키는 사람)”으로 인식한 것에 대해서 원통해하고 분하게 생각하여 한 번 변론하고자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史臣은 “정인홍의 차지는 오로지 이언적과 이황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중략)… 저 인홍 같은 자는 斯文의 쓸데없는 가라지나 土類를 해치는 좁도독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¹⁶⁾라고 하여, 래암의 차지는 이언적과 이황을 공격하기 위한 행위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하였다. 그리고 己丑獄事 때 성훈과 이이의 일로 차자를 올린 것과 지금 이황과 이언적의 일로 차자를 올린 일을 들먹이면서 정인홍을 斯文의 잡초이고, 土類의 좁도독이라고 비난하였다. 『光海君日記』는 시간이 지날수록 래암에 대한 비난의 강도가 더 해졌다.

1623년 3월 13일 인조반정을 일으킨 후 곧바로 광해군을 폐위시켜 강

15) 『光海君日記』 卷26, 광해2년(1610), 3월 정유.

16) 『光海君日記』 卷39, 광해3년(1611), 3월 병인.

화도로 내쫓고 이이첨을 처형하였다. 3월 14일 인조가 즉위하였고 3월 15일 司諫 李聖求가 이퇴기를, “서령 부원군 정인홍은 산림을 가탁하고 오로지 음흉한 짓만을 일삼았습니다. 폐모론을 주장하여 흉적의 화를 빚어냈으니, 잡아다 국문할 것을 명하소서.”¹⁷⁾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인홍은 영남 사람으로 曹植의 문하에서 수업하고 헛된 이름을 흠쳐 風憲의 장관에 除授되기까지 하였다.¹⁸⁾고 하였다. 이처럼 『仁祖實錄』에는 정인홍이 인조반정 후 곧바로 폐모론을 주장하였으며, 헛된 이름을 흠쳐 벼슬한 사람으로 매도되었다.

백사 이항복은, 정인홍이 스승 南冥의 사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상소한 것을 가지고 “조식의 문하에는 정인홍이 없었으면 道가 더욱 추존되었을 것이다.”¹⁹⁾라고 하여 정인홍의 「晦退辨斥疏」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다. 그리고 『光海君日記』에서 “인홍은 집에 있으면서 한 번도 남을 가르친 일이 없었고, 다만 『弟子錄』 1질을 두고서 그 성명을 죽 적어 제자라고 칭하여 서로 기세를 으스델 뿐이었다.”²⁰⁾라고 하였다. 또 다른 『光海君日記』에서 “인홍은 한 번도 학도를 가르친 적이 없었다. 단지 弟子錄을 비치해두고 그의 논의에 동의하는 자는 모두 수록하였는데, 李爾瞻이 첫번째 자리에 올랐다.”²¹⁾라고 하였다. 『光海君日記』의 내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歪曲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연히 이이첨은 래암의 제자가 아니다.

『石潭日記』는 栗谷 李珥가 일기체 형태로 명종 20년(1565)부터 선조

17) 『仁祖實錄』 卷1, 인조1년(1623), 3월 을사, 11번째 기사.

18) 『仁祖實錄』 卷1, 인조1년(1623), 3월 을사, 11번째 기사.

19) 『光海君日記』 卷40, 광해3년(1611), 4월 계미. “曹植之門, 無仁弘, 則道益尊.”

20) 『光海君日記』 卷44, 광해3년(1611), 8월 임신.

21) 『光海君日記』 卷66, 광해5년(1613), 4월 신유. “仁弘未嘗教授學徒, 但置弟子錄, 同其論者盡錄之, 爾瞻爲首.”

14년(1581)까지 17년 동안 그 당시의 政事를 중심으로 국왕의 행례, 신하들의 진퇴 등 여러 가지 시정을 기록하고 선생의 의견을 添述한 책이다. 이 『石潭日記』에도 정인홍의 관한 내용이 있다.

인홍은 사헌부에 있으면서 위풍으로 제재하여 백료들이 振作되고 肅正되었고 거리의 장사치들까지도 감히 금하는 물건을 밖에도 내놓지 못하였다. …(중략)… 이이가 말하기를, “나는 덕원을 韋로 삼고 덕원은 나를 弦으로 삼아 덕원이 나와 하나로 합친다면 어찌 일을 하지 못하겠는가.” 하였다.²²⁾

司憲府의 책임자인 大司憲을 지낸 이이가 사헌부 掌書를 지낸 정인홍에 대한 평이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대체로 栗谷이 來庵[덕원]을 강직한 인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石潭日記』 7월조에 “정인홍은 강직하기만 하고 도량이 좁으며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주도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시작하면 원수와 같이 미워하여서 이미 禹性傳·李敬中을 논핵했다.”²³⁾ 와, 『石潭日記』 8월조에 “덕원은 강직하나 생각하는 계획이 두루 소상치 못하고, 학식이 밝지 못하니 용병에 비하면 돌격장으로 될 것이다.”²⁴⁾ 라 하여, 처음 래암의 강직하다는 평과는 다소 차이가 난다. 東人인 李滌이 西人인 심의겸을 論劾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래암에게 결정을 부탁하니, 래암은 다시 西人인 대사헌 율곡에게 심의겸을 논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율곡이 듣지 않자,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²⁵⁾ 하였다. 결국 래암의 주장대로 심의겸은 論劾되었다. 율곡은 직책상 래암의

22) 李珣, 『石潭日記』, 만력 구년 신사 <1581년, 선조 14, 4월> 국역 대동야승IV pp.288~289.

23) 李珣, 『石潭日記』, 만력 구년 신사 <1581년, 선조 14, 7월> 국역 대동야승IV pp.305.

24) 李珣, 『石潭日記』, 만력 구년 신사 <1581년, 선조 14, 8월> 국역 대동야승IV pp.305.

25) 李珣, 『石潭日記』, 만력 구년 신사 <1581년, 선조 14, 7월> 국역 대동야승IV pp.304~305.

상관이었고 심의결과 오랜 친분이 있었는데도 래암의 요구를 막지 못했다. 그래서 율곡이 ‘래암은 도량이 좁고 생각이 치밀하지 못해, 마치 돌격 대장처럼 과격할 뿐’이라고 하였다. 趙慶南이 撰한 『續雜錄』에는 “역적 괴수 정인홍은 뱀과 전갈 같은 성질이요, 귀신이나 물귀신 같은 심장으로 처음에는 비록 山林에서 허명을 얻었으나 특히 하나의 호강한 관원에 불과했다.”²⁶⁾라고 하여, 래암을 심하게 비난하였다. 이것은 인조 원년(1623) 계해년 4월조 실린 것이다. 인조반정(1623년 3월) 1개월 후의 글이다 보니, 당시의 세태가 반영되어 래암의 대한 호칭이 역적 괴수로 돌변하였다.

노론(서론)의 영수인 宋時烈(1607~1689)의 제자인 金昌協은, “남명의 문하에서 노는 사람들은 대개 모두 氣를 숭상하고 기이한 것을 좋아했는데, 심한 경우에는 정인홍이 되고, 심하지 않으면 최영경이 되었다.”²⁷⁾라고 하여, 특히 래암을 비난하였다. 『肅宗實錄』의 南人 박현의 상소문에는 “송시열의 죄는 鄭仁弘보다 지나칩니다. 정인홍은 그 피가 알아서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마는, 송시열은 그 계획이 깊어서 사람들이 엿볼 수가 없었으니, 그 죄가 정인홍보다 지나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송시열이 살아 있음은 정인홍의 억울함이 될 것입니다.”²⁸⁾라는 구절이 있다. 송시열의 예론을 정인홍의 행위와 연결하여 비판했다. 숙종 15년 김방결(남인) 상소에서도 “그(송시열)가 전후로 범한 죄는 國母를 폐한 鄭仁弘의 죄보다 더한데 정인홍은 伏罪되었건만, 송시열은 아직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으니, 신은 전일의 失刑을 징계할 길이 없을까 염려합니다.”²⁹⁾라고 하여, 정인홍의 역적죄를 사실화했다. 『宣祖實錄』의 사료에는 폐모

26) 趙慶南 撰, 『續雜錄』 卷二, 계해년 4월. 국역 대동야승Ⅷ pp.27~28.

27) 金昌協, 『農巖集』, 卷32, 雜識, pp.32~33.

28) 『肅宗實錄』, 卷4, 숙종1년, 6월 신미.

29) 『肅宗實錄』 卷20, 숙종15년 윤3월 기해.

론의 문제가 주로 이이첨을 지목했다면, 정인홍은 문묘종사와 관련하여 논해졌다. 그런데 숙종 조에 와서 정인홍이 국모를 폐한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그러면서 남인 정권 때 편찬된 『肅宗實錄』에는 정인홍보다 송시열의 죄가 더 깊다고까지 하였다.

다음은 오늘날 정인홍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강화학파인 梅泉 黃玹(1855~1910)은, 『梅泉野錄』에서 “광해군 때 이이첨이 정인홍을三公의 서열에 두고 정인홍의 일을 이용하여 매사 큰일마다 곁과 속이 서로 화합하여 儒賢의 논의임을 빙자하여 그 속마음을 실행하였다.”³⁰⁾라고 하였다. 이는 광해군 때 이이첨이 래암의 盛名을 악용하여 정국을 주도하였으며 廢母殺弟의 처사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 같이 서술하였다는 것이다. 『연려실기술』에서도 1600년에 이이첨과 이산해가 흥여순과 정치적 대립에서 불리해지자 광해군의 지지를 받기 위해 산림의 정인홍을 사주했다.³¹⁾는 내용이 있다. 申炳周도 「宣祖 후반에서 光海君代の政局과 鄭仁弘의 역할」에서, 來庵이 대북정권의 또 다른 주축인 이이첨에게 이용당한 측면이 크다고 하여, 『연려실기술』의 내용과 매천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이처럼 래암이 이이첨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면이 있다.

이에 반해 丹齋 申采浩(1880~1936)는, <朝鮮日報> 1935년 12월 20일 옥중회고록에서 ‘5천년 우리 민족 사상의 대표적 인물로, 육지의 명장은 을지문덕·해군의 제독은 이순신·정치의 제1인자는 정인홍이 있다.’³²⁾라고 하여, 래암을 성공한 정치인으로 평가했다.

30) 黃玹, 『梅泉野錄』(上), 국사편찬위원회, p.10.

31) 『국역연려실기술』 권4, 「선조조 고사본말」, 민족문화추진회, 1988, pp.440~441.

32) 申采浩, <朝鮮日報>, 1935년 12월 20일.

이이화는 「鄭仁弘의 政治思想과 現實認識」에서, 來庵의 개혁 방향은 철저하게 民 위주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의 정치사상은 철저한 현실 개혁이었기에 진보주의자로서 공론을 배제하고 실천적 위민사상에 충실했으며, 忠君보다는 爲民에 철저했던 개혁적인 역사인이라고 평가하였다. 李相弼은 「來庵 鄭仁弘의 學問性向과 政治的 役割」에서, 문학에 힘쓰기보다는 실천을 위해 노력했다는 來암의 학문적 성향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民은 나라의 근본이며 그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는 民本精神을 來암이 지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이화와 이상필은 來암을 민본주의자로 평가하였다.

權仁浩는 「朝鮮 中期 士林派의 社會政治思想 研究」에서, 당시 일반적인 여타 유학자보다 유학의 정치사상에 투철하여 민중을 옹호하고 왜곡된 정치질서에서 지배층의 부정부패에 대한 비판자였던 來암은, 인조반정이라는 쿠데타(1623)에 의해 89세의 나이로 희생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來庵 鄭仁弘의 至治主義的 學問傾向性과 改革思想」에서, 來암은 『大學』의 ‘修己治人’을 出處의 典範으로 인식하였으며, 조식이 지녔던 『大學』의 학문사상과 그 실천이 정인홍을 통하여 至治主義的 改革政治로 표현되었다고 하였다. 成校珍은 「來庵 鄭仁弘의 儒學思想」에서, 來암의 유학사상은 다분히 趙靜菴의 至治主義에 그 연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으며 儒學 본래의 名分과 體統을 지키려는 데 있다고 했다. 따라서 권인호와 성교진은 來암을 儒者로 평가하였다.

신창호는 「來암 정인홍의 실천적 교육정신」에서, 來암에게 ‘敬과 義’는 개인의 수양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고려하는 교육 정신이면서 자기 수양이 곧 현실 세계의 배려라는 사고로 귀결되며, 사회적 실천성은 현재 한국 교육이 나갈 방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지금의 교육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교육에 임해야 하는지 실천적 태도의 전범을 보여주었다고 했다. 鄭鉉在

는 「慶尙 右道 壬辰義兵의 戰跡 검토」에서, 정인홍의 임란 시 행적의 서술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 보완했으며, 김강식은 「임진왜란 시기 경상우도의 의병 조직의 변화와 의미」에서 정인홍 군의 초기 의병 조직은 학연으로 결합된 문인들이 다수였으며 합천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인사였다고 하였다. 서정문은 「南冥集의 編刊과 來庵·寒岡 門派의 成立」에서, 래암은 己丑獄死 이후 향촌에 물러나 있을 때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의병활동을 하여 그 지역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구축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중앙 정치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래암의 임란 시 행적은 義의 실천이었다.

史載明은 「來庵門人에 관한 考察」에서, 來庵門人의 형성배경을 ‘정치적 배경’과 ‘지역적 배경’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정치적 배경으로는 鄭汝立의 모반사건으로 일어난 己丑獄事로 래암의 동문인 최영경이 죽자, 그 일로 상소하여 조정을 시끄럽게 하였으며, 임란 시 주화론자인 유성룡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士類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역적 배경으로는 래암의 문이 주로 거주하였던 진주를 중심으로 경상우도의 문인이라 하였다. 許捲洙는 「仁祖反正으로 인한 南冥學派의 沈沒과 沙溪學派의 浮上」에서, 남명학파의 수장인 정인홍은 회재 이언적과 퇴계 이황·서애 유성룡·구암 이정·약포 정탁 등 유림이나 조정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퇴계학파의 인물들과 관계를 악화시켜, 대북파의 앞날을 험난하게 만들었으며, 율곡학파와 우계학파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廢母殺弟로 인해 남명학파 내부의 분열로, 남명학파는 침몰을 자초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래암의 비타협적인 면을 문제 삼았다.

尹晶은 「조선 후기 政界의 鄭仁弘 인식과 그 정치적 함의」에서, 정인홍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고착되는 과정의 원인을 첫 번째는, 이이·성혼의 문묘 종사 반대와 두 번째는, 폐모론 때문이라고 했다. 정호훈은, 폐모

론은 ‘이이침이 주도하는 가운데 허균·김개·이경전 등이 받치고, 이위경·윤유겸 등 젊은 유생들이 앞장서서 주창하였으며 정인홍이 외방에서 이를 지원하며 방어막을 치는 형국’³³⁾이라고 하였다. 禹仁秀는 「來庵 鄭仁弘의 政治社會的 位相과 役割」에서, 래암의 정치사회적 위상은 중앙의 대북세력과 연결되어, 대북세력에 정치적 기반이나 집권의 명분을 제공하였을 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이화는 「정인홍은 역적인가, 지사인가?」에서, “남명이 별세한 2년 후(1575)에 정인홍이 卓行의 선비로 조정에 천거되어 6품인 황간 현감이 되었으며, 그 뒤 십여 년 동안 승진을 거듭하여 지평·장령 같은 언관이 되어 모든 벼슬아치의 잘못을 서슴없이 가려내고 임금께 충실하게 간하여 그의 명성이 온 조정과 향곡에 드날렸으나, 한편으로는 지탄과 비난이 따르기도 했다.”라고 하였다. 그 비난의 이유는 래암의 강직한 성품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윤정·정호훈·우인수·이이화 등은 래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왕권강화의 목적과 스승에 대한 옹호로 상대 政派를 용인하지 못하는 비타협적인 성격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신항수는 「정인홍, 근왕의 충신인가 패륜의 역신인가」에서, 광해군 정권의 몰락 원인을 대북세력의 배타적인 권력독점이었으며, 이는 정인홍의 책임이 적지 않다고 했다. 신병주도 「조선중기 南冥學派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에서, ‘정인홍으로 대표되는 남명학파의 직선적·급진적인 면모는 비판자의 위치에서는 일정한 역사적 기능을 수행했지만, 현실정치의 담당자로 변신했을 때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³⁴⁾라고 하였다. 신항

33) 정호훈, 16世紀末 北人の 형성과 國家·君權 의식, 『朝鮮後期 政治思想 研究』, 혜안, 2004, pp.71~72.

34) 신병주, 「조선중기 南冥學派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 『조선 중·후기 지성사 연구』, 새문사, 2007, p.59.

수와 신병주도 래암의 비타협적이고 융통성 없는 정치력을 그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이상의 논의로 과거와 현대에서 來庵 鄭仁弘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가를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黨派와 反正으로 인해 래암 정인홍에 대한 평가가 實錄의 기록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그 평가도 다르다. 北人이 정권을 장악했을 때는 래암에 대한 평가가 절조와 의리가 뛰어난 강직한 인물이었고, 인조 반정 후의 평가는 고집이 세며 독단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이었다. 특히 인조반정 후 서인세력에 의해 편찬된 『宣祖修正實錄』과 『光海君日記』에서는 의병을 해체하지 않고 사병처럼 부리고, 화를 잘 내며 사람됨이 편협하고 과격하다고 했다. 그리고 『仁祖實錄』에는 폐모론의 주모자로 서술되었다. 이는 『宣祖實錄』의 “義를 숭상하고 邪를 미워하는 마음이 시종 흔들리지 않았다.”는 내용과 차이가 많다. 그리고 栗谷 李珥의 『石潭日記』에는, 율곡이 래암에 대해 처음에 가졌던 좋은 감정이 西人인 심의겸의 탄핵사건으로 인해 달라지고 있다. ‘래암의 강직함[韋]과 자신의 유연함[弦]이 조화를 이루면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탄핵 후에는 래암을 ‘앞뒤도 분별하지 못하는 돌격장’으로 평가 절하하였다. 노론의 주장인 송시열의 제자 김창협은 남명학과를 기이한 것을 좋아하는 무리로 비난하였으며, 조경남의 『續雜錄』에는, 仁祖反正 한 달 후에 나온 글로 래암에 대한 평이 ‘뱀과 같은 성격’이라는 인신공격성의 글이 실려 있다. 그리고 『肅宗實錄』에는, 남인들이 노론(서인)인 송시열을 래암과 대비시켜 비난한 내용이 있다. 南人 세력들은, 北人인 래암보다 노론(서인)인 송시열을 심하게 비난했다. 이런 사실은 당파의 색깔에 따라 인물의 평가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남인이 노론(서인)을 심하게 비난하는 것도 17세기 중·후반 남인 중 북인계 남인 곧, 허목·윤휴·유형원³⁵⁾ 등이 등장하

여 복인의 개혁성을 계승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같은 복인의 개혁성은 남명 조식으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한말 양명학을 추구했던 강화학파인 梅泉 黃玟은 『연려실기술』의 내용처럼 이이첨이 정인홍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사학자 丹齋 申采浩는, 來庵 鄭仁弘이 조선 5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륜을 가진 정치가로 평가하였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래암과 같은 의병활동이 필요했기 때문에, 더욱 그의 개혁적인 실천사상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래암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없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래암 정인홍이 철저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 위주의 進步的 士林派였다고 인식하였으며, 義를 숭상하여 임란 시 의병활동도 적극적이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는 인물이라고도 하였다. 그런 그의 행동을 선비정신의 발현으로 보아 높이 평가했다.

한편으로 스승인 남명에 대한 옹호와 왕권 강화를 위해 상대편을 배려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규탄한 점은, 그의 과격성과 비타협성이라는 한계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남명이 강조한 『大學』의 6조목인 ‘誠意·正心·修身·齊家·治國·平天下’ 중, 래암은 본인 誠意와 正心보다는 末인

35) 林煥澤, 『磻溪逸稿』의 고찰, 『韓國漢文學研究』 제38집, 2006, p.8. 임형택 교수는 한국 실학은 반계 유형원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라고 하였다. 李佑成 교수는 初期 實學과 性理學과의 관계 (初期 實學과 性理學과의 관계-磻溪 柳馨遠의 경우-, 『東方學志』 58, 1988.)에서 실학이 李滉보다는 李珣의 학문에 근원한다는 학계의 견해를 비판하여, 韓百謙·李晳光·柳馨遠 등과 같은 17세기 초기 실학자와 연관이 있으며, 그 기점에는 이황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줄고 『南冥의 문학과 교육을 통해 본 實踐躬行과 因人施教』(『南冥의 문학과 교육을 통해 본 實踐躬行과 因人施教』, 『南冥學研究』 제25집, 2008.)에서, 조선 후기 실학의 기점은 남명의 實踐躬行的 사상과 因人施教의 교육 방법에서 시작되었다고 했다.

治國과 平天下에 관심을 더 가져 盛德君子의 과업을 완수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면서 정치가로서 성공하지 못한 산림학자라고 평가한 연구자도 있었다.

따라서 來庵은 南冥이 강조한 敬意思想을 바탕으로 임난시 의병활동으로 실천했으며, 개혁적인 정치사상으로 지배계층의 부정부패를 비난했다는 긍정론적 시각과, 상대편을 인정하지 않은 과격성·비타협성으로 오히려 廢母殺弟라는 汚名을 받게 되었다는 일부의 동정론적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대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來庵을 진보적 정치 개혁가로 평가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Ⅲ. 著述과 生涯의 선비精神的 評價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선비’라는 뜻의 ‘士’라는 말은, 王·公·士·大夫 등 일체의 선비를 아울러 일컫는 말로서, ‘배워서 벼슬자리에 앉거나 앉을 수 있는 선비’를 가리키는 말로 두루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君子를 지향해 나가며 道를 배우고 실천하는 선비를 ‘士’의 ‘선비정신’은, 군자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나 언행 그리고 벼슬길에 나아가고 벼슬길에서 물러나 處하는 出處의 문제 등으로써 살펴볼 수 있다. 『禮記』, 「儒行」篇에서, 선비는 “患難相死也.”(환난을 당하면, 서로 죽음에 임한다.)라 하였으며, “義同而進, 不同而退.”(義가 같으면 나아가나, 같지 않으면 물러난다.)라고 하였다. 『禮記』, 「儒行」篇의 다음 구절은, ‘선비’ 특히 유학자들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士’로서의 선비 ‘儒’[儒者]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를 잘 밝혀 주고 있다.

선비[儒]는 忠信으로써 갑옷과 투구를 삼으며, 禮義로써 방패를 삼으며, 仁을 머리에 이고 다니며, 義를 안고 處하여, 비록 暴政이 있더라도 그 處所를 고치지 않으니, 그 스스로 自立[自立]이 이와 같은 점이 있습니다.³⁶⁾

이는, 魯나라 哀公이 ‘선비의 行실[儒行]을 묻은 데 대하여, 孔子가 대답한 말씀 중의 한 구절이다. 여기서 우리는, ‘선비[儒]가 진실된 마음과 미더움[忠信]으로써 자기 몸을 단단히 武裝하며, 禮義로써 세상을 살아 나가고 모든 사람을 대하는 도구를 삼으며, 항상 仁을 행할 것을 목표로 삼으며, 마음 속으로는 이익을 피하지 않고 언제나 義를 추구해 나갈 것을 생각해서, 비록 威勢와 武力을 加해 오고 暴政을 행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지조를 굽혀 마음을 옮기지 않는, 만인이 우러러보는 우뚝한 존재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孔子 말씀으로써, ‘선비정신’의 대강을 죽히 파악할 수 있다.³⁷⁾

그러면 이제, 래암의 저술과 생애를 통해 선비정신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來庵集 卷十一, 「答李宗勗」에는 廢母의 부당함을 지적한 구절이 있다.

“아들과 어머니의 名義로써 重하게 한 연후에 峻截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이 일[준절]은 臣民에게 있어서는 君主[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義이며, 子母에 있어서는 서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道’입니다.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반드시 폐하고 죽이고자 한 연후에 가능하다면, 장차 임금과 부모의 위치를 어디에다 둘 것입니까? 만약 임금의 잘못을 폐하여 바로잡으려 하는 것을 의리라 한다면, 장차 임금과 신하의 의리

36) 『禮記』, 卷第四十一, 儒行篇 참조

37) 鄭堯一, 「선비精神과 선비精神의 文學論」, 『漢文學의 研究와 解釋』, 一潮閣, 2000, pp.20~36 참조.

는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母子 사이에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도리가 있고 君臣 간에는 임금과 신하의 의리가 존재하는 것이니, 반드시 병행하여 서로 어그러짐이 없어진 연후에야 비로소 마음이 편안할 수 있습니다.”³⁸⁾

위의 인용문은 來庵이 광해군께 선조의 비이면서 영창대군의 모친인 목대비와 그의 아들인 영창대군에 대한 廢母殺弟에 대해서 반대한 글이다. 래암은 왕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의리이며, 아들과 어머니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것이 道라고 인식하였다. 의리를 바탕으로 母子와 君臣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다. 이는, 자식과 신하의 도리를 강조한 것으로, 선비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기본정신을 밝힌 것이다.

『來庵集 卷五, 「辭漢城府判尹疏」에서, “臣은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지나간 壬寅年間에 일찍이 召命을 입어 부지런히 힘써 就職했다가 이미 감당하지 못했기로 진실로 퇴거할 것을 청했습니다.”³⁹⁾라고 하여,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는 까닭을 아뢴 것이다. 선조가 유영경과의 결탁으로 인목대비의 소생인 영창대군을 왕세자로 세우려는 것을, 래암이 부당함을 지적하다가 귀양을 가게 되었다. 래암이 귀양가는 도중에 선조가 죽자, 왕세자인 光海君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왕위에 오른 광해군은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한 래암에게 한성부 판윤을 除授하지만, 래암은 고령의 나이로 不仕했다. 그러면서도 현실정치는 잊지 못하여, “특히 전하께서는 확실히 몸소 실천하시어 걸치레로 하지

38) 鄭仁弘, 『來庵集』 卷十一, 答李宗勗. 『韓國文集叢刊』 43, pp.431~432.

“子母名義爲重, 然後爲峻截耶. 凡此事在臣民, 則有格君非之義, 在子母則有相全之道, 不可一概言也. 必欲以廢殺然後可也, 則將置君父於何地, 若廢格君非之義, 則將以君臣之義, 安在自有母子之道, 自有君臣之義, 必并行而不相悖, 然後始安於心.”

39) 鄭仁弘, 『來庵集』 卷五, 辭漢城府判尹疏. 『韓國文集叢刊』 43, p354.

“臣年踰七十已久矣. 往在壬寅年間, 嘗被召命, 黽勉就職, 已不堪任, 固請退去.”

말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하셔야만 조정은 權綱을 總攬할 것이옵고, 한번 選任된 文臣은 의심하지 마옵소서. 정직한 사람을 들어 쓰고 굽은 사람은 내버려 두어서, 조정을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⁴⁰⁾라는 말로써 참된 儒者다운 모습을 보였다. 참된 儒者는 어떠한 곳에 처해 있어도, 세상을 등지지 않고 언제나 세상을 바로잡고자 노력한다. 그것이, 修己治人의 학문적 과정을 중시하는 것으로도 나타나고, 겸양의 德으로도 나타나며, 聖賢의 道를 따라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聖道之學의 자세로도 나타난다. 이 같은 모습이 儒者로서의 전통적인 선비정신인 것이다.

래암이 고령의 나이로 인해 고향에 머물면서도, 언제나 마음은 현실을 염려하는 자세를 보여, 참된 儒者의 모습을 견지하였다. 『辭漢城府判尹疏』에서, 『論語』, 『爲政』篇의 “舉直錯諸枉則民服, 舉枉錯諸直則民不服.”(곧은 사람을 들어서 굽은 사람들 위에 얹혀 놓으면 백성들이 따르고, 굽은 사람을 들어서 곧은 사람들 위에 얹혀 놓으면 백성들이 따르지 않습니다.)이라는 구절을 用事함으로써, 올바른 위정자의 모습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來庵集 卷二, 『辭義將封事』에서는, “편당 짓기를 좋아하고 옳고 바른 것을 싫어하며, 청백리나 지조 있는 이들을 천시하고 시세나 이익을 따르며, 명예와 의리를 가벼이 여기고 벼슬과 녹봉을 중시하여, 무엇이 우리 가문에 이익이 될 것인가, 무엇이 내 몸에 이로울 것인가라고 합니다. 시정 모리배들은 사랑하면서도, 임금과 부모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권세와 요직은 두려워하면서, 나라의 법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의 것을 빼앗아 위에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자를 유능하다고 하고, 제

40) 鄭仁弘, 『來庵集』 卷五, 『辭漢城府判尹疏』, 『韓國文集叢刊』 43, p354.

“特在殿下着實躬行, 不以聲音笑貌爲而已也. 如此而朝廷摠攬權綱, 選任大臣, 勿貳勿疑舉直錯枉而朝廷正.”

대로 변별하여 물건을 아끼는 사람을 세상 물정에 어둡다고 하며, 나라 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은 미치광이로 몰아붙이는, 이런 관행이 생긴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었으니, 외적이 쳐들어와도 막을 수 없음을 알지 못합니다.”⁴¹⁾라고 하여, 편당 짓기를 좋아하는 세태와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세상을 걱정하면서, 외적의 침입을 우려했다. <참된 儒者라면, 不正한 현실에 바른 소리를 내어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이다.

『來庵集』, 『辭尙州牧使疏』에는, 來庵이 의병활동 중 호남의 곡창을 보호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있다.

“처음 本道가 적에게 淪沒 당하였을 때, 적의 세력이 비록 성하였지만 倡義起兵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遠近에서 동시에 일어나 각자 항전하였으므로, 비록 적세가 강대하였으나 그 勢가 분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장구히 서쪽으로 달려가 곧바로 호남지방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각기 무리로 모여서 오랫동안 持久之勢로 버티었습니다. 그 간에 明 나라 원병이 마침내 이르러, 삼경을 수복하고 적은 해안으로 물러가게 되었으니, 이것이 당시 경상우도 일대에서의 경과의 대략입니다.”⁴²⁾

위 글의 내용은, 래암의 실천적 의병 활동의 예이다. 선비는,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한다. “환난을 당하면, 서로 죽음에 임한다.”라고 한 『禮記』, 『儒行』篇의 내용처럼, 래암은 義로써 왜적에 항

41) 鄭仁弘, 『來庵集』 卷二, 辭義將封事, 『韓國文集叢刊』 43, p319.

42) 鄭仁弘, 『來庵集』 卷二, 辭尙州牧使疏, 『韓國文集叢刊』 43, p327.

“當初本道之淪陷也, 賊勢雖盛, 餘義者多. 遠近同起, 各自爲戰, 賊雖强大, 其勢不得不分. 故不能長驅西向徑入湖南, 而聚衆屯, 住曠歲持久. 天兵竟至收復三京, 此乃江右一道之終始.”

거했던 것이다. 이처럼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몸소 실천으로 옮기는 것도, 선비정신의 한 특징이다.

『宣祖實錄』 卷211, 선조 40년 5월 정축의 來庵 관련 기록에, “비록 물러나 있을 때에도 강개하게 나라를 걱정하여 난리가 나자 창의하였으되 공을 자랑하지 않았으니, 절조와 풍제가 남이 따르기 어려운 바가 있었다.”⁴³⁾라고 기술되어 있다. 참된 儒者를 추구한 來庵은, 벼슬에서 물러나 山林에 居處하면서도 나라에 대한 걱정을 놓지 않고 있다가, 임란이 일어나자 倡義하여 왜적을 물리쳤으며 그 功을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來庵의 이런 모습이 선비정신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

『光海君日記』 卷98, 광해군 7년 12월 癸卯條의 기록도 來庵의 선비정신으로서의 행적을 알 수 있게 하는 글이다. “신은 듣건대, 『書經』에 이르기를 ‘신하는 위를 위해서는 德을 위하고 아래를 위해서는 백성을 위한다.’ 하였으니, 위를 위한다는 것은 임금의 덕을 도와 이루는 것이고, 아래를 위한다는 것은 민생을 위하는 것입니다. 신하의 도리는 이 두가지에 불과합니다.”⁴⁴⁾라고 하여, 백성을 위한 민본사상을 강조했다. 來庵은 같은 글에서, “만약 전하께서 세금을 적게 거두어들이고 낭비를 줄이고, 1년 농사를 완전히 실패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역을 감면해 주고, 수령의 탐오한 습관을 다스려서 민심을 기쁘게 하며, 중외에 포고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성명께서 백성을 근심하는 성대한 뜻을 알게 하신다면, 죽어가던 백성들이 모두 감격하여 그 굶주림조차 잊을 것입니다.”⁴⁵⁾라고 하여, 백성을 위한 구체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또한 來庵은, “臣이 노병이 심하여 형편상 서울에 남아 있을 수 없으므로, 부득불 구구하게 절박한 사정을 전

43) 『宣祖實錄』 卷211, 선조 40년 5월 정축.

44) 『光海君日記』 卷98, 광해군 7년, 12월 계묘.

45) 『光海君日記』 卷98, 광해군 7년, 12월 계묘.

하께 올리는 것입니다. 신은, 애초 문을 닫아걸고 영영 가 버리는 사람은 아닙니다.”⁴⁶⁾라고 하여, 出仕하지 못하는 이유를 노병으로 들고 있다. 비록 몸은 임금 곁을 떠나지만, 마음은 영영 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선비정신에 바탕을 둔 儒者의 글은, 가령 자연을 노래할 경우에도 현실을 망각한 채 단순히 賞自然의 단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현실을 염려하는 자세를 보여 준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므로써, 제대로 파악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儒者가 樂山樂水(요산요수)할 줄도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철저한 儒者라고 하더라도 때에 따라서는 마음껏 자연을 노래할 수 있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儒者야말로 인간 본성의 회복을 학문의 궁극 목표로 삼는 자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도덕 높은 철저한 儒者일수록 인간의 본성을 가장 참되게 회복한 자로서 자연물 곧 대상의 참모습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으리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삶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을 노래하는 것과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 결코 동떨어진 것일 수만은 없다. 따라서 儒者들이 자연을 노래하다가 인생 또는 현실을 노래한다거나 자연을 노래하는 가운데 인생 또는 현실을 동시에 노래한다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⁴⁷⁾고 할 수 있다. 래암은 21편의 한시를 남겼다.⁴⁸⁾ 그 중 한 작품을 그와 같은 儒者의 자연관에 비추어 살펴보기로 하자.

46) 『光海君日記』 卷98, 광해군 7년, 12월 계묘.

47) 鄭堯一, 「선비精神과 선비精神의 文學論」, 『漢文學의 研究와 解釋』, 一潮閣, 2000, pp.83 참조.

48) 래암의 21편의 한시 중 6편이 脫字가 되어 『來庵集』에 전해진다. <有感> 1자, <山中卽事> 7자, <梅松> 4자, <詠懷> 1자. <有感> 10자, <憶孚飲亭> 7자 등이 탈자되어 전해진다.

<孤松>

언제나 원하기를, 새 소나무 百尺이나 자라서, 常願新松百尺長,
세한 상설에도 風光을 보전했으면 하였네. 歲寒霜雪保風光.
꽃나무를 심지 않고서 春色만으로 단장하자니, 不栽花木粧春色,
해 가도록 百花 향기 다시 맡을 수 없네. 百花終年更不香.⁴⁹⁾

이 작품에서 래암의 고고한 선비정신이 묻어난다. 百花가 孤松에 압도 당하는 모습이다. 늘 꿈꾸던 백척의 새 소나무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봄빛으로 단장되었다. 소나무는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래암의 강인함을 상징한다. 절기에 따라 꽃을 피우는 百花와는 달리, 孤松은 世流에 따라 자기의 지조를 바꾸는 소인배의 백화가 아니라, 세한 상설일수록 더욱 푸른 소나무인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부패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으려는 來庵 자신의 모습일 것이다. 광해군의 조정에서 정치적 주도 세력이 되었지만, 서인계에 의해 타파의 대상이 되어야만 한 그는, 마치 엄동설한의 산등성이에 우뚝 서 있는 외로운 소나무인 것이다.

다음 『선조실록』에서의 자료문은 래암의 선비정신이 잘 드러난 글로 史臣의 論이다.

사신은 논한다. …(중략)… <정인홍은> 모가 나고 날카로워 사람들과 화합하는 경우가 적었으며, 義를 숭상하고 邪를 미워하는 마음이 시종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을 대하여 논의할 즈음에는 칼로 끊은 듯이 하고, 남에게 의롭지 못한 행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비록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마치 노예처럼 비루하게 여기고 원수처럼 미워하였으며, 비록 평소 알고 지내던 名儒碩士로 불리는 자라도 조금만 아부하고 구차스레 화합하려는 태도가 있으면 절대로 함께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사람들이 모두 꺼리고 병통으로

49) 鄭仁弘, 『來庵集』 卷一, <孤松>. 『韓國文集叢刊』 43, p309.

여겼지만,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⁵⁰⁾

“義를 숭상하고 邪를 미워하는 마음이 시종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선비이다. 주변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워한다고 해서 반드시 나쁜 사람은 아니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이 아니다. 君子는 의리로써 사귀고 小人은 이익으로써 사귀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곧 同類끼리 모이고 어울리는 것을 ‘類類相從’이라고 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기 마련이며, 악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미워하기 마련이다. 『論語』, 「爲政」篇에, 군자는 ‘周而不比’하고 소인은 ‘比而不周’한다는 말이 있다. 따라서 군자는 이해관계를 따져서 나란히 偏黨하지 않고, 學緣·地緣·血緣 등을 떠나서 의리로써 두루 사귀되 그 중에서도 착한 사람을 좋아하고 가까이하는데, 소인은 그렇지 못하다. ‘남에게 의롭지 못한 행실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높은 벼슬 아치라도 원수처럼 미워했으며, 평소 알고 지냈던 名儒碩士도 아부하는 태도를 보이면 함께 말을 하지 않았다.’는 來庵이야말로 진정한 선비로 인식된 것이다. 그런 자신의 태도를 주변 사람들이 꺼려해도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고 한다.

착한 사람들이 좋아하되 악한 사람들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악한 사람들에게도 잘 보일 만큼 구차스럽게 迎습한 행실이 있을 것이요, 악한 사람들이 미워하되 착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는 반드시 착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실속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래암은, 아첨하는 무리들을 싫어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했다. 이것이야말로 선비가 지녀야 할 진정한 선비정신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선비정신에 비추어 래암의 出處觀을 살펴보기로 하자.

50) 『宣祖實錄』 卷211, 선조 40년(1607), 5월 정축.

鄭仁弘이 상처하여 …(중략)… 이언적과 이황이 지난날 嘉靖 을사년(1545, 인종 1년)과 정미년(1547, 명종 2년) 사이에 혹은 극도로 높은 벼슬을 하였고, 혹은 청직과 요직을 지냈으니, 그 뜻이 과연 벼슬할 만한 때라고 여겨서입니까? 이것은 진실로 논할 것도 못 되거니와, 만년에 이르러서는 결연히 물러나 나라에서 여러 번 불려도 나가지 않았으니, 이 또한 하나의 높고 뻗뻗한 일이며 세상을 경멸하는 행실입니다.⁵¹⁾

『論語』, 「泰伯」篇, 「篤信」章에서의 공자의 말씀에, “(옛 성현의 도를) 독실하게 믿고서 배우기를 좋아하며, 죽음으로써 지키면서 (그 도를) 닦아 나가느니라.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 거처하지 않으며, 천하가 道가 있으면 제 몸을 나타내 보이고 道가 없으면 숨느니라.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또 천하게 지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자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니라.”⁵²⁾라는 구절이 있다. 그 나라에서 그만한 직책이나 직분을 맡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위태로운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그 어지러운 나라에 거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만약에 그 나라에 들어가거나 거처하면서 그 나라의 위태로움과 어지러움을 바로잡아 줄 만한 역량이 있다면, 아마도 그 나라에 들어가거나 거처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천하에 道가 있으면 제 몸을 나타내 보이고 道가 없으면 숨는다고 하였다. 천하에 도가 있고 出仕할 의사도 있다면, 이는 儒家的 관점의 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出仕의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천하에 언제든 道가 실현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기에 만약 道가 없으면 벼슬에 나아가지 않고 자연에 은둔하면서도 자신의 참된 속뜻을 쉽사리 드러내지 않으며 세상이

51) 『光海君日記』 卷39, 광해 3년(1611), 3월 병인.

52) 『論語』, 泰伯」篇, 「篤信」章. “子曰, 篤信好學 守死善道. 危邦 不入 亂邦 不居 天下 有道則見 無道則隱. 邦有道 貧且賤焉 恥也 邦無道 富且貴焉 恥也.”

뛰어남을 기다리는 것이, 선비의 자세인 것이다. 그런데 이언적과 이황이 벼슬한 인종 1년과 명종 2년이 벼슬할 만한 때인가를 반문하면서, 오히려 말년에 나라의 부름이 있어도 나아가지 않은 것은 세상을 속이는 행위라고, 래암은 비판한 것이다. 만약 위태로움과 어지러움을 바로잡을 역량이 있었다면, 마땅히 이때에도 벼슬길에 나아가야 했다. 그런데 이때에는 出仕하지 않았다. 그것이 선비의 出處觀으로 보았을 때 바람직한 出處觀은 아니라는 것이다. 래암의 선비정신을 주목하게 되는 기록으로, 그 취지는 벼슬할 만한 때가 아니면 당연히 물러나야 하는 데 이황과 이언적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IV. 結 論

본고는, 조선 중기의 北人 학자 來庵 鄭仁弘의 著述과 生涯를 통하여 그의 선비精神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필자는, 먼저 『朝鮮王朝實錄』의 관련 기록과 그에 대한 後代 연구자들의 평가를 검토한 후, 그의 저술과 생애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선비정신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위에서 『朝鮮王朝實錄』 등의 기록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한 인물에 대한 시대적 평가는, 각각 어느 정도 一理 있는 객관성을 보인다고도 하겠으나, 각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政派에 따라 평가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北人 정권 때 기록된 『宣祖實錄』과, 西人 정권 때 기록된 『宣祖修正實錄』 그리고 『光海君日記』에서는, 래암에 대한 평가가 적지 않은 차이를 드러냈다. 『宣祖實錄』에서는 래암을 강직한 인물로 서술한 데 비해, 『宣祖修正實錄』과 『光海君日記』에서는

성품이 음흉하고 과격하며 남을 헐뜯는 인물로 서술했던 것이다. 그리고 『仁祖實錄』과 『南人』 정권 때의 『肅宗實錄』에서는, 폐모의 주모자이며 ‘괴수 역적’이었던 것으로 표현되었다. 말하자면 래암에 대한 평가에서, 후대로 내려올수록 비난의 강도가 더해졌던 것이다. 그것은, 평가자의 주변과 그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던 까닭으로 파악된다.

栗谷 李珥 같은 분도, 같은 『石潭日記』에서 처음에는 강직한 인물로 평가하다가, 율곡 자신과 같은 西人系였던 심의겸이 이발과 정인홍에 의해 탄핵되자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돌격 대장이었던 듯이 비판한 데에서도 확인되며, 『숙종실록』에서 南人들이 北人이었던 래암보다 西人으로서 老論이었던 송시열을 더욱 심하게 비난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이런 몇가지 사실들을 종합할 때, 래암에 대한 평가가 다분히 그 당시의 黨色에 따라 달리 평가되기도 하고, 따라서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 현대의 연구자들에 이르러서는, 대개 래암을 개혁적이며 진보적인 士林派로 평가하기도 하고, 혹은 상대편의 政派를 포용하지 못한 비타협적인 인물로서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대 연구자들의 평가의 흐름은 대체로, 『조선왕조실록』의 일부 기록에서 행해진 ‘역적 정인홍’이라는 평가와는 달리, 실천적이며 개혁적인 정치 사상가였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필자가, 역사서나 후대 학자들의 저술에서의 평가와 관계없이, 래암의 저술과 생애를 통하여 그의 선비정신을 살펴볼 때, 「答李宗弼」이라는 글에서 廢母殺弟의 부당함을 들어 자식과 신하의 도리를 강조한 것을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또한, 高齡의 나이로 인해 고향에 머물면서도 언제나 마음속으로 현실을 염려하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참된 儒者의 면

모를 보여 준 것을 주목하게 된다. 래암은, 임진왜란으로 나라가 위태로워 지자, ‘환난을 당하면 서로 죽음에 임한다.’라고 한 『禮記』, 「儒行」篇의 내용과 같이, 의리로써 왜적에 항거한 점에서 선비정신의 실천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光海君日記』에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는 그의 出處觀으로써도, 그의 선비정신의 一面은 충분히 드러난다고 하겠다. 세상에 도가 실현되지 않을 때에는 물러나 세상이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선비가 지녀야 할 자세임을, 래암은 明宗朝의 인물들에 관한 논평으로써 보여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제 래암에 관하여 평가하되, 그의 저술과 생애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儒者的 가치관과 선비정신에 의해, 종래의 각 시대의 큰 영향을 미치는 政派에 따라 다소 달라졌던 부정적인 평가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으며, 오히려 매우 긍정적으로 재평가되어야 할 측면이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I. 研究 資料

- 『論語』, 中和堂, 1917.
- 『禮記』, 卷第四十一, 「儒行」篇.
- 『朝鮮王朝實錄』
- 『宣祖實錄』, 卷145, 卷211.
- 『宣祖修正實錄』 卷7, 卷36.
- 『光海君日記』 卷26, 卷39, 卷40, 卷44, 卷66, 卷98.
- 『仁祖實錄』 卷1.
- 『肅宗實錄』, 卷4, 卷20.
- 『高宗實錄』 卷1.

『純宗實錄』 卷2.

『韓國文集叢刊』 43.

鄭仁弘, 『來庵集』 卷一, 卷二, 卷五, 卷十一.

李珣, 『石潭日記』, 만력 구년 신사 <1581년, 선조 14, 4월> 국역 대동야승IV pp.288~289.

李珣, 『石潭日記』, 만력 구년 신사 <1581년, 선조 14, 7월> 국역 대동야승IV pp.305.

趙慶南 撰, 『續雜錄』 卷二, 계해년 4월. 국역 대동야승VIII pp.27~28.

金昌協, 『農巖集』, 卷32, 「雜識」, pp.32~33.

黃玟, 『梅泉野錄』(上), 국사편찬위원회, p.10.

『국역연려실기술』 권4, 「선조조 고사본말」, 민족문화추진회, 1982, pp.440~441.

申采浩, <朝鮮日報>, 1935년 12월 20일.

II. 論著

權仁浩, 「朝鮮 中期 士林派의 社會政治思想 研究」- 南冥 曹植과 來庵 鄭仁弘을 中心으로,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1990, pp.57~177.

權仁浩, 「來庵 鄭仁弘의 至治主義의 學問傾向性과 改革思想」, 『南冥學研究論叢』 제6집, 南冥學研究院 出版部, 1998, pp.401~439.

김강식, 「임진왜란 시기 경상우도의 의병 조직의 변화와 의미」, 『지역과 역사』 제9호, 부산경남역사연구소, 2001, pp.165~200.

史載明, 「來庵門人에 관한 考察」-來庵門人의 現況과 動向을 中心으로, 『南冥學研究論叢』 제8집, 南冥學研究院 出版部, 2000, pp.157~189.

서정문, 「南冥集의 編刊과 來庵·寒岡 門派의 成立」, 『朝鮮時代史學報』40, 朝鮮時代史學會, 2007, pp.133~213.

成校珍, 「來庵 鄭仁弘의 儒學思想」- 그의 山林적 위치와 軍자적 經世론을 중심으로, 『研究論文集』35, 大邱曉星가톨릭大學校, 1987, pp.137~167.

申炳周, 「南冥 曹植의 學風과 南冥 門人의 활동」, 『南冥學研究論叢』 제3집, 南冥學研究院, 1995, pp.279~320.

申炳周, 「宣祖 후반에서 光海君代의 政局과 鄭仁弘의 역할」, 『南冥學研究』 제11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1, pp.233~267.

신병주, 「조선중기 南冥學派의 활동과 그 역사적 의미」, 『조선 중·후기 지성사

- 연구』, 새문사, 2007, p.59.
- 신창호, 「래암 정인홍의 실천적 교육정신」, 『한국교육학연구』 제11권 제2호, 安岩教育學會, 2005, pp.5~28.
- 신항수, 「정인홍, 근왕의 충신인가 패륜의 역신인가」, 『내일을 여는 역사』 제12호 봄, 서해문집, 2003, pp.207~220.
- 李相弼, 「來庵 鄭仁弘의 學問性向과 政治的 役割」, 『南冥學研究』 제6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1996, pp.73~102.
- 이이화, 「정인홍은 역적인가, 지사인가?」-자료로 본 한국사의 쟁점, 『마당』45, 계몽사, 1985, pp.220~227.
- 이이화, 「鄭仁弘의 政治思想과 現實認識」, 『慶南文化研究』11,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所, 1988, pp.163~176.
- 禹仁秀, 「來庵 鄭仁弘의 政治社會的 位相과 役割」, 『朝鮮史研究』5, 朝鮮史研究會, 1996, pp.39~59.
- 尹晶, 「조선 후기 政界의 鄭仁弘 인식과 그 정치적 함의」, 『震檀學報』 제100호, 震檀學會, 2005, pp.53~84.
- 鄭堯一, 「선비精神과 선비精神의 文學論」, 『漢文學의 研究와 解釋』, 一潮閣, 2000, pp.20~36.
- 정호훈, 「16世紀末 北人의 형성과 國家·君權 의식」, 朝鮮後期 政治思想 研究, 혜안, 2004, pp.71~72.
- 鄭鉉在, 「慶尙 右道 壬辰義兵의 戰跡 검토」- 金沔·鄭仁弘 의병군단을 중심으로, 『慶南文化研究』17, 慶尙大學校 慶南文化研究所, 1995, pp.43~88.
- 許捲洙, 「仁祖反正으로 인한 南冥學派의 沈沒과 沙溪學派의 浮上」, 『南冥學研究』 제16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3, pp.259~298.

ABSTRACT

Noble Spirit in In Hong Jung's Publications and Life

Yun, In Hyun

This study analyzed the publications and life of In Hong Jung (pen name: Raeam), a northern sect scholar from the mid-Joseon Dynasty, to examine his noble spirit. Before doing so, I investigated how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and later scholars evaluated Raeam.

The evaluation of Raeam varies greatly in northern administration's History of King Seonjo, and western administration's Modified History of King Seonjo, and the Journal of King Gwanghaegun. The History of King Seonjo describes Raeam as a man of faith and integrity, while the Modified History of King Seonjo and the Journal of King Gwanghaegun depict him as a treacherous and violent man who likes to talk ill of others. The History of King Injo and the History of King Sukjong describe him as a monstrous and rebellious man who initiated the disposal of the queen. Raeam is more severely blamed in later generations.

Yi Yi (pen name Yulgok) evaluated him as a faithful man in his Journal of Seokdam at first, but later blamed him when Bal Yi and In Hong Jung impeached Eui Gyum Shim, another scholar in the western sect. The History of Sukjong, written by the southern sect criticized Si Yul Song of the western sect (conservative) more severely than Raeam of the northern sect. Based on these facts, we can assume that these evaluations of Raeam were strongly biased by the political stances of each sect.

Modern scholars evaluate Raeam as a revolutionary and liberal Confucian scholar, but point out that he lacked toleration of other sects. Although certain parts of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record In Hong Jung as a traitor, modern scholars describe him as a practical and revolutionary political thinker.

The fact that Raeam emphasized the virtue of offspring and servant by criticizing the execution of disposed queen in 「Dabijonguk」 and was always concerned about the reality even after his retirement, shows that he was a truthful Confucian scholar. When the Joseon Dynasty encountered the Japanese Invasion of 1592, he wrote, "Everyone dies in a war," in his Yegi (Yuhaeng) and showed his noble spirit to confront the invaders. His political view also reflected his noble spirit. Raeam showed that nobility shall be able to wait for the world to clear up when the world is ruled by the vice.

Key Words : In Hong Jung, Noble Spirit, th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Faithful Man, Monstrous Traitor, Stances of a Sect, Political View

논문투고일 : 2008. 9. 30
심사완료일 : 2008. 10. 28
게재확정일 : 2008. 11. 14